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개최, 유공자 2명 장관표창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15일(월) 서울 코리어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 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집트(11.5), 남아공(11.11), 코트디부아르(11.14), 가나(11.22) 등

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중동아프리카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인 (044-203-5724)

□ 배경 및 목적

- (목적)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 新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 (주최/주관) 산업통상부 / 한-아프리카재단
- (일시/장소) '25. 12. 15(월) 12:30~16:15 / 서울 코리어나 호텔
 - * 행사 장소 : 7층 로얄룸(오찬), 2층 크리스탈에메랄드룸(본행사)
- (참석) 산업부, 駐韓아프리카 대사단, 국내외 기업인·전문가 100여명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12:30~13:40	(70')	■ 駐韓아프리카대사단 오찬
14:00~14:20	(20')	■ 개회식
14:20~15:05	(45')	■ [세션①] 한-아 통상산업협력 전망
		① 對 아프리카 협력전략 (KIEP)
		② 한-이집트 통상산업협력 동향과 기회 (駐韓이집트대사관)
		③ 한-남아공 통상산업협력 동향과 기회 (駐韓 남아공 상공회의소)
15:05~15:35	(30')	■ [세션②] 한-아 경제협력 성과 및 기업사례
		① 남아공 G20연계 경제행사 추진 성과 및 계획 (KOTRA)
		② 아프리카 진출 주요기업 사례 (㈜오영)
15:35~16:15	(40')	■ [세션③]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협력 방안
		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대외협력사례 (駐韓케냐대사관)
		② 한-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협력 전략 (KIEP)